2012-19

POLICY FOCUS

정 · 책 · 포 · 커 · 스

경남의 해안도보여행길 조성방안

연구진 채동렬 박사

GNDI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정책포커스(Policy Focus)는 지역현안이나 이슈를 발굴하여 그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황진단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보다 심도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의 성격을 가짐

경남의 해안도보여행길 조성방안

2012. 6

연구책임
채동렬(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자문
안점판(경남발전연구원 도정연구관)

〈 요 약 〉

○최근 국민들 사이에 도보여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여러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기 다른 사업명칭으로 여러 가지 도보여행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7월 52개소의 아름다운 해안누리길을 선정, 경남지역에서는 남해군 2개소, 사천, 고성, 통영 각 1개소 등 모두 4개소 총길이 34.3㎞의 해안누리길이 선정되었음. 경남의 해안선 길이에 비해 선정된 해안누리길의 길이가 짧은 편이며, 그 동안의 지역정책 활용도는 낮은 편임

○경남지역은 섬이 많고 해안선을 따라 수려한 경관이 형성돼 있어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에 적합함. 성공적인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과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육지부의 도보여행길과의 차별화를 이루어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도보여행길 조성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

○현재까지 경남지역에 적용되어 온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사업은 남해바래길과 토영이야~길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잘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해안누리길 구간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용객의 수도 적으며, 도보여행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코스 선정, 가족단위 도보여행객의 어촌문화 체험 및 섬 관광 등 활용가능한 자원의 프로그램 연계 미흡, 도보여행 코스의 편의시설 미비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국내외 해안도보여행 사례연구 결과, 해안도보여행은 자연환경의 보호와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도보여행자 편의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 확충, 도보여행자 안전지침 작성, 야외활동 및 레저스포츠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여행자가 선호하는 코스 선정, 국가 및 지방정부의 체계적 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 등이 성공요인으로 분석됨

○연구의 결과 경남의 해안도보여행길 적용전략으로 도보여행길 브랜드명칭 개발, 경상남도 주도의 체계적 사업추진, 다양한 레저스포츠 및 체험활동 기회 제공, 도보여행객 유형에 따른 접근, 도보여행 정보제공 등을 제시함.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방문객 수 증가 및 방문활동의 질적 향상을 통한 어촌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3

Ⅱ. 도보여행 확산추이와 도보여행길 조성 정책 검토 ····· 4

1. 도보여행 개관 ····· 4

2. 각 부처별 도보여행길 조성 정책 비교 ····· 7

Ⅲ. 경남의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정책 진단 및 사례연구 ····· 18

1. 국토해양부 해안누리길 선정 현황 ····· 18

2. 경남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 22

3. 국내외 해안도보여행길 사례연구 ····· 28

Ⅳ. 경남의 해안도보여행길 적용 방안 ····· 36

1. 경남의 해안도보여행길 관광상품화를 위한 전략 ····· 36

2.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을 통한 어촌활성화 방안 ····· 40

참고문헌 ····· 42

-표 목 차-

(표 1) 회원수 500인 이상 도보여행자 인터넷 카페 개설 현황 ····· 6
(표 2)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현황 ····· 12
(표 3) 숲길 세부 분류에 따른 노선 선정 절차 및 기준 ····· 14
(표 4) 각 정부부처별 도보여행길 조성정책 비교 ····· 17
(표 5) 해안누리길 선정 세부현황 ····· 19
(표 6) 바닷길 100리 연차별 추진계획 ····· 27
(표 7) 15개 내셔널트레일 세부내용 ····· 29
(표 8) 2011년 세계 톱 10 도보여행지 ····· 30
(표 9) Rottnest 섬 도보여행길 관광상품 활용 내용 ····· 33
(표10) 도보여행길의 구성요소와 고려사항 ····· 39

- 그림목차 -

(그림1) 해안누리길 노선 현황도 ····· 21
(그림2) 경남 해안누리길 노선 현황도 ····· 23
(그림3) 갈맷길 9코스 ····· 35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1) 연구배경

○최근 도보여행이 국민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여러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기 다른 사업명칭으로 여러 가지 도보여행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국토해양부는 2010년 7월 전국 해안을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52개소의 아름다운 해안누리길을 선정했으며(총 길이 505km), 이 중 부안의 변산마실길이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출시되어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경남지역에서는 남해군 2개소, 사천, 고성, 통영 각 1개소 등 모두 4개소, 총길이 34.3km의 해안누리길이 선정됨. 경남의 해안선 길이에 비해 선정된 해안누리길의 길이가 짧으며, 그 동안의 지역정책 활용도는 낮은 편임

2) 연구필요성

○정재희(2010)의 연구에서 국내 걷는 길 조성사업들 대부분이 관광 인프라시설의 한 부분으로만 다뤄지는 반면 풍부한 환경자원과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경남지역에서는 육로 위주의 도보길 노선발굴보다는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지역의 고유한 환경·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

○경남지역은 섬이 많고 해안선을 따라 수려한 경관이 형성돼 있어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이 적합함.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은 일반적인 도보여행길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

○ 해안누리길은 국토해양부가 해안경관이 수려하고 해양문화 및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노선을 발굴해 선정한 해안도보여행 코스임. 동 사업의 내용은 국민들에게 해안도보여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만 국한되며, 이 코스를 도보여행길로 조성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해안누리길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안도보여행길로 조성하는지 여부는 지방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결정됨

○ 해안선을 연결하는 도보여행길은 도 단위의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지역관광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전라남도는 '남도 갯길 6000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부산갈맷길 700리, 9개 코스를 선정해 도보여행길로 개발하고 있음

○ 경남해안에 도보여행길을 잘 조성해 도보여행객 방문이 증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경남 해안의 경관 보호 및 해안선 보존 : 아름다운 해안선을 여행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해안선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 : 방문객의 식사, 숙박, 기념품 및 특산품 구입 등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해안 및 어촌지역 경제부흥효과 발생

  ○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선 : 도보여행길 조성 및 도보여행구간의 편의시설, 대중교통 연결 등으로 섬과 해안지역의 생활 및 정주여건 개선

  ○ 어업·어촌·해양환경·해양역사·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 청소년에게 육지 위주의 교육과 체험활동에서 벗어나 해양문화와 어업활동을 접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으로 이를 통해 어촌과 해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며 영토와 국방, 국가경제 및 지역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 효과 발생

  ○ 어촌 및 해양관광 활성화 : 어촌과 해안지방을 방문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성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회수도 증가하는데 이는 잠재적인 어촌체험 및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수요층을 형성하는 효과를 가짐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남지역 해안도보여행길 조성 및 전략적 이용 방안을 제시해 지역의 자연 및 문화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먼저 도보여행의 개념과 특징 및 최근의 확산현상을 개관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도보여행길 조성사업을 간략히 검토한 후 현재 선정된 경남의 해안누리길 활용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한 후 경남의 해안도보여행길 관광상품 적용 전략과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도보여행 확산추이와 도보여행길 조성정책 검토

1. 도보여행 개관

1) 도보여행의 개념과 장점

□ 도보여행의 개념

○도보여행은 자동차, 기차 등 운송수단을 이용해 이동하는 보통의 여행과 달리 걸으면서 여행하는 것을 의미함. 도보여행은 목적이 걷기 자체인 경우와 관광지 일대를 걸으면서 여행하는 것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걷는 길의 자연환경에 따라 숲길, 산길, 해안길, 도시(골목)길 여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전에는 걸으면서 하는 여행의 개념을 표현할 때 '하이킹 또는 트레킹'과 같이 외래어를 그대로 차용한 말을 주로 사용했으나 근래에는 '도보여행'이라는 말이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음. 박영아 외(2009)는 '길고 힘든 여행을 하다, 또는 전진하다'의 어원을 갖는 트레킹의 부정적인 개념과 달리 '도보여행(walking tour)'은 느리게 걸으면서 관광을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파악함

□ 도보여행의 장점

○현대의 도시인은 바쁜 생활로 인한 운동기회의 부족과 과도한 영양섭취 등으로 성인병 발생 등 건강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 걷는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기술의 습득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의 효과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방법임. 도보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며, 걷기운동의 단조로움을 여행이라는 즐기는 활동으로 극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상영 외(2011)은 도보여행의 매력을 ①몸과 마음의 건강, ②자아성찰, ③자연과의 동화, ④문화 체험, ⑤역사의 재발견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도보여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용한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체험, 역사유적 탐방 및 문화체험활동의 기회 제공 등을 제시함

2) 도보여행의 확산

○세계적으로 걷는 길은 19세기 유럽에서 다양하게 조성된 이후에 20세기 말부터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 유럽과 북미는 휴양지와 공원을 중심으로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조성되어 있음(이성용, 2011)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걷기 열풍이라고 말할 정도로 도보여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는 급격한 경제성장기를 지나 IMF 사태를 겪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동안 '빨리빨리'를 외치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느림의 여유로움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게 되었고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한 것 등 사회경제적으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됨

○박영아 외(2009)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와 지리산을 단지 걷기 위해 찾는 여행객이 한 해에 수만 명에 이르는 것을 '걷기 신드롬'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나라의 특별한 현상으로 간주함

○도보여행은 최근의 현상으로 관련 자료가 부족함. 최근의 도보여행자 증가 추세를 인터넷 카페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회원수 500명 이상 카페 42개 중에서 가장 회원이 많은 카페는 2002년 10월 개설된 인터넷 포털 다음에 개설된 카페 '인생길 따라 도보여행'으로 총 회원수는 42,409명임

  ○회원수 500명 이상 카페 중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가 29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는 13개이며, 포털별로 보면 다음 카페가 32개, 네이버가 10개임

(표1) 회원수 500인 이상 도보여행자 인터넷 카페 개설 현황

구분	카페 이름	회원 수	개설일
다음 카페	세상걷기	8,673	2000년 05월
	동고동락 강산길	604	2001년 01월
	대구도보여행클럽	1,482	2001년 04월
	사단법인 우리땅걷기	8,433	2001년 10월
	길따라 여행	8,862	2002년 02월
	걸어서 가자	2,086	2002년 03월
	인생길 따라 도보여행	42,409	2002년 10월
	숲길 도보여행	1,097	2005년 04월
	남도답사 도보여행	1,097	2005년 04월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 - 유유자적	6,499	2006년 09월
	나를 찾아 길 떠나는 도보여행	20,184	2007년 02월
	아름다운 도보여행	18,007	2007년 03월
	도보여행 걷기모임	2,887	2007년 08월
	여자의 도보여행	2,033	2008년 05월
	발견이의 도보여행 - 길을 찾는 사람들	11,381	2008년 10월
	안동걷기 사람	748	2008년 11월
	강화나들길	4,647	2009년 01월
	구름위에 도보여행	542	2009년 03월
	숲길따라 도보여행	2,833	2009년 05월
	제주 올레길을 사랑하는 사람	3,451	2009년 05월
	자유로운 도보여행	745	2009년 06월
	제주올레홀릭	8,147	2009년 06월
	군산 구불길	1,230	2009년 07월
	느리게, 다르게, 행복하게 - 달팽이	4,060	2009년 07월
	심도기행	606	2009년 07월
	늠내길 사람들	719	2009년 10월
	도보여행길	711	2009년 12월
	카미노 도보여행	1,196	2010년 01월
	경기도 평화누리길	1,753	2010년 02월
	지리산둘레길 걷기	1,590	2010년 06월
	정겨운 도보여행	640	2010년 08월
	발길 닿는 곳으로의 도보여행	521	2011년 01월
네이버 카페	굿트레일	1,200	2003년 12월
	청주 삼백리	895	2005년 09월
	걷기클럽	12,128	2006년 05월
	주말에 떠나는 도보여행	1,147	2007년 01월
	건강과 여행정보	1,523	2007년 04월
	걷기마당	4,738	2008년 03월
	김포시 걷기 동호회	745	2008년 10월
	부산갈맷길 - 그린웨이 부산	699	2009년 07월
	숲찾사 - 숲을 찾는 사람들/숲길 걷기여행	3,379	2010년 05월
	걷기나라 -숲과길	695	2011년 03월

자료)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2012년 4월말 접속기준).

○ 회원수 별로 살펴보면, 회원수가 3만명 이상인 카페는 1개, 1만명 이상 3만명 미만은 4개,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은 5개, 1천명 이상 5천명 미만은 19개, 5백명 이상 1천명 미만은 13개이며, 이중에서 1천명 이상 5천명 미만이 약 4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만명 이상이 약 2.3%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카페 개설일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 이전 개설된 카페수가 8개, 2005년 이후에 개설된 카페수는 34개로 2005년 이후에 설립된 카페수가 전체의 약 80.9%를 차지하고 있음. 이로 미루어 우리나라에서 도보여행은 2000년 이후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2005년을 지나면서 급속하게 확산된 것을 알 수 있음

2. 각 부처별 도보여행길 조성 정책 비교

1) 행정안전부 우리마을 녹색길

(1) 사업목적

○ 행정안전부의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사업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의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음

○ 첫째, 보행자 중심의 환경친화적 길 조성임. 이는 마을주변의 역사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길을 조성하고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보행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보행자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한 마을길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임

○ 둘째, 도보여행길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임. 마을주변에 다양한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하는 등 녹색길이 지역의 명소로 알려져 외래방문객의 유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함

(2) 추진경과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97개 노선, 1,052㎞의 녹색길을 선정(2011년 52개 노선, 505㎞ / 2012년 45개 노선, 547㎞)했음

○행전안전부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시·도의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노선을 대상으로 행전안전부의 2차 심사(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와 민간전문가의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노선 선정

○투자예산 : 2년간 800억원을 투입

◦2011년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

◦2012년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

(3) 사업의 특징

○지역공간 체험형, 수변공간 활용형, 도심문화 생활형 및 명상·사색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조성

◦수변공간 활용형 : 강, 바다, 호수 등 수변 생태자원(수변 명소등)을 활용한 길

◦명상·사색형 : 건강과 사색을 주제로 한 호젓한 오솔길 또는 숲길

◦지역공간 체험형 : 지역내 역사 문화관광자원(유적지·왕릉·정자 등)을 연계한 길

◦도심문화 생활형 : 도심지내 산책로, 공원 및 문화거리 등과 연결한 길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노선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지역주민들이 직접 녹색길의 노면 관리, 순찰활동 및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녹색지킴이단을 구성

2) 환경부 생태탐방로

(1) 사업목적

○환경부는 단시간 관람, 유흥오락 관점의 탐방문화에서 탈피하여 깊이 있는 체험과 교육의 장을 제공직접 보고, 배우고 체험 할 수 있는 탐방문화로의 전환을 위해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기로 결정

○다양한 탐방자원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테마형 탐방로를 조성하고 각 테마별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특정 지역에 탐방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림지역·하천·습지·해안지역 등 다양한 탐방 자원을 개발

(2) 추진 경과

○환경부는 2006년 생태·조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토생태탐방로 구축계획'을 논의하고, 간담회에서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경관·역사성 및 사업 용이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퇴계 오솔길'을 시범 노선으로 선정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 연구용역」을 추진(2006년 6월~2007년 6월), 2007년 2월 동 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2007년 8월~10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2007년 11월「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2008~2017)」을 확정

□ 사업 추진 방법

○생태탐방로의 개념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자연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문화·역사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조성된 도보 중심의 길"로 정함

○생태탐방로 위계 설정 : 탐방자원의 가치, 전국적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국가·광역·지역생태탐방로로 탐방로 체계를 정립

○「국가생태탐방로」는 전국적 연계성을 가지고, 국립공원·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국가적 위상을 가진 우수한 자원이 분포한 탐방로

○「광역생태탐방로」는 국가생태탐방로 노선상에 있는 자원을 제외한 탐방자원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인지도가 높고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원이 분포한 탐방로

○「지역생태탐방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설치·운영되고, 지역차원에서 가치가 있는 자원이 분포한 탐방로

○생태탐방로 지정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하에 결정생태탐방로 세부 노선의 적정성 검토·협의

○생태탐방로의 조성 및 관리

○환경부는 생태탐방로 조성 기본방향·가이드라인 제시 및 예산을 지원하고,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생태탐방로 조성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 구분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생태탐방로 노선계획 및 광역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을 고려하여 생태탐방로 간 연계성이 있도록 지역생태탐방로 조성계획 수립

○투자예산 : 2008~2017년의 기간 동안 총 1,626억원 투자(국비 760억원, 지방비 866억원)

○매년 국가생태탐방로 30개 구간, 광역 및 지역생태탐방로 30개 구간 조성

○계획수립과 탐방로 조성 외에 모니터링,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생태탐방 해설가 양성 및 교육, 생태탐방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등 예산 반영

(3) 특징

○선정 지역의 자연과 문화·역사를 효과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길 조성

○자연·역사·문화에 대한 체험·안내 시설 제공,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테마형 생태탐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별 생태탐방 해설가 양성(탐방객과 탐방해설가간 연계시스템 구축)

○다양한 형태의 길을 제공(숲길, 강·하천길, 마을길, 옛길, 해안길 등)

○생태탐방로의 위계 설정 : 탐방자원의 가치, 전국적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국가·광역·지역 생태 탐방로로 탐방로 체계를 정립

○핵심 생태계 보전 지역은 노선에서 제외하고 생태탐방 자원에 대한 체계적 보호

3)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생태탐방로

(1) 사업목적

○단순히 관람하는 여행에서 역사문화와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질 높은 여행경험 제공

○각각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특성 있는 스토리를 따라 연계하여 지역간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대규모 시설 건립 등 인프라 구축보다 자연환경과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관광상품 확충

(2) 추진 경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9년 3월 사업추진 및 관리방향을 제시한「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

○2009년 3월 시·도 및 민간전문가들로부터 35개 시범사업지를 추천받아 이 가운데 답사대상 12개 코스를 1차적으로 선정함. 시범사업지는 여행작가, 여행동호회 관계자 등 7명이 참여한 노선선정 답사단의 현장답사를 거쳐 선정됨

○2009년 9월 문화생태탐방로의 BI(Brand Identification)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도보여행자 여권 및 도보여행 인증서 발급, 2009년 12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가이드북' 발간

○ 현재까지 총 37개 노선, 연장거리 1,324㎞의 문화생태탐방로가 조성됨

◦ 2010년 5월 문화생태탐방로 10곳 선정(땅끝길, 새매넘어 소조령길, 대관령 너머길, 백의종군로, 토성 산성 어울길, 쇠둘레 평화길, 토양이야~길, 남해 바래길, 청산여수길, 중도 모실길)

◦ 2011년 3월 문화생태탐방로 10곳 선정(아차산 고구려 역사실, 사비길, 서울 성곽길, 금강 하구실 갈재길, 섬진강길, 동강길, 두물머리길, 승부역가는길, 담양 수목길)

◦ 2012년 3월 문화생태탐방로 10곳 선정(내포안개길, 선비문화탐방로, 태백산맥 문학이행길, 흥부길, 위례길, 중원문화길, 낙동강하구생태길, 무돌길, 금강생태탐방길, 갯벌낙지길)

(표2)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현황

연도	탐방로명
2009년 (7개, 482㎞)	소백산 자락길(132㎞), 강화 둘레길(100㎞), 삼남대로 따라가는 정약용의 남도유배길(55㎞), 동해 트레일(영덕(55㎞), 삼척(24㎞)구간),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의 토지길(31㎞), 고인돌과 질마재를 따라 100리길(40㎞), 여강을 따라가는 역사문화체험길(45㎞)
2010년 (10개, 291㎞)	땅끝길, 새재넘어 소조령길(48㎞), 대관령 너머길(36㎞), 백의종군로(18㎞), 토성 산성 어울길(20㎞), 쇠둘레 평화길(27㎞), 토영이야~길(25㎞), 남해 바래길(55㎞), 청산여수길(19㎞), 증도 모실길(43㎞)
2011년 (10개, 286㎞)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13㎞), 사비길(10㎞), 서울성곽길(19㎞), 금강 하구실(32㎞), 갈재길(9㎞), 섬진강길(99㎞), 동강길(56㎞), 두물머리길(28㎞), 승부역가는길(12㎞), 담양 수목길(8㎞)
2012년 (10개, 265㎞)	내포안개길(9㎞), 선비문화탐방로(11㎞), 태백산맥 문학기행길(8㎞), 흥부길(10㎞), 위례길(30㎞), 중원문화길(30㎞), 낙동강 하구 생태길(22㎞), 무돌길(52㎞), 금강생태탐방길(39㎞), 갯벌 낙지길(54㎞)

자료)문화관광체육부

○ 2017년까지 기금, 국고, 지방비 등 1,000억원 투자

(3) 특징

○ 선정된 노선을 문화형과 생태형·복합형으로 구분하고, 문화형의 경우 ①역사문화형(옛길·순례길 등), ②예술문화형(소설길 등), ③생활문화형(마을길·농로 등)으로 재구분

○단순히 걷는 도보길이 아니라 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토리가 탐방자원과 어우러질 수 있는 노선을 발굴하고, 역사·문화·생태 및 관광자원 등을 스토리텔링화
  ○지역의 역사·문화를 익히는데 필수적인 박물관·전시관·체험마을 등도 함께 둘러 볼 수 있도록 코스를 조성
  ○지역사회의 풍부한 역사·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탐방해설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불우·다문화·탈선청소년 등과 멘토가 함께 걷는 도보 멘토링 여행을 통해 소통하고 상처를 치유 할 수 있는「청소년 여행학교」운영

4) 산림청 숲길

(1) 사업의 목적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수평적 개념의 도보 숲길을 조성하여 기존의 등산과 다른 신규 트레킹 수요를 창출

○지자체별로 숲을 걷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난립해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이 고려되지 못하며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2) 추진 경과

○산림청에서는 2003년부터 등산로 조성 사업을 시작. 2007년에는 사단법인「숲길」이 산림청의 녹색자금으로 '환지리산 트레일 코스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지리산 둘레길(숲길)이 탄생

○산림청은 2009년 초에 마련된 산림문화체험숲길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강원권 약수숲길, 충청권 내포문화숲길 등 전국 7개 권역 12개소 1,500km에 대한 세부 노선선정·자원조사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전국 산림문화체험숲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인 숲길 조성이 시작됨

○2010년 7월 산림청이 지리산 둘레길에 이어 2번째로 조성한 숲길인 '십이령 금강소나무숲길' 개통(국비를 투입한 최초의 사업)

○2011년 7월 15일에 개정·공포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에는 숲길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숲길의 정의 :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로 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2011년 12월「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발표, 2012년부터 동 기본계획의 실행을 착수해 2021년까지 추진할 예정임

□ 사업 추진 방법

○사업대상은 등산로 1만 2,300㎞, 국가트레킹길 5,600㎞, 지역트레킹길 2,000㎞

○예산은 2012년에서 2021년까지 1조 3,000억원 투입

○선정 방법 : 산림청의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에는 숲길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노선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표3) 숲길 세부 분류에 따른 노선 선정 절차 및 기준

숲길 세부분류	노선 선정 절차 및 기준
등산로	• 산림청에서는 등산로의 예정노선을 선정하고, 주변지역의 입지특성이나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등의 지역여건과 지형도·토지이용도 등과 관련된 기초조사를 실시 • 예정노선에 대하여 위치, 시작점과 종점, 일반 현황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정 노선의 이용자나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 기초조사와 대상지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노선을 선정
트레킹길 휴양·치유숲길 탐방로	• 트레킹길, 휴양·치유숲길, 탐방로에 대한 조성목적과, 노선선정원칙, 조성 및 운영·관리 방향, 타 숲길과의 차별화·연계 방안 등에 대해 정립 •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예정노선을 선정하고 예정노선 주변지역의 입지특성,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지역여건 분석 및 자료수입과 문헌조사 실시 • 1차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예비노선에 대해 지역주민, 이용예정자, 인근 숲길 관리청,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 •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노선을 구체화 한 후 2차 현장 조사 실시 • 노선확정

자료)산림청,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

(표3) 숲길 세부 분류에 따른 노선 선정 절차 및 기준(계속)

숲길 세부분류	노선 선정 절차 및 기준
레저스포츠길	• 산악마라톤·자전거 등 산악레포츠 활용에 적합한 구간을 조사하고 노선의 유형, 위치, 예정구간의 GPS좌표, 거리 등을 분석 •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종목별 예정 노선의 적합성·안정성 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하고 다른 숲길 이용자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개 코스에 여러 종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 • 지역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종목별 노선 등에 대하여 인접 숲길 관리청, 이용예정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 지역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노선 확정

자료)산림청,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

(3) 특징

○숲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걷기 수요 창출

◦등산길: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등산)을 하는 길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트레킹)을 하는 길. 트레킹길은 ①둘레길(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과 ②트레일(산줄기나 산자락을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로 분류

◦레저스포츠길: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산악레저스포츠)을 하는 길

◦탐방로: 삼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탐방)을 하는 길

◦휴양·치유숲길 :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숲길의 특성 및 주체에 따라 국가 숲길, 지역 숲길로의 이원화

○숲길과 주변의 산림생태계 보호 및 파괴된 생태계 복원을 통한 쾌적한 숲길 환경 제공

◦숲길 휴식년제 및 휴식기간제 운영

○숲길체험지도사 양성 및 배치 :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등산·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숲길 지역주민을 숲길체험지도사로 양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5) 국립공원 둘레길(환경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1) 사업목적

○등산과 같은 정상 정복 산행 방식에서 발생하는 자연 생태계 훼손을 저감하고 새로운 걷기여행 수요에 부응하는 도보여행길 공급

○국립공원 방문객 수 증대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객 증가에 따른 특산품 구매로 지역주민 생활기반 활성화

(2) 추진 경과

○2009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자락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둘레길(63㎞) 조성 계획 발표

○2010년 1월 북한산 둘레길의 순례길(3.4㎞) 구간 개통

○2010년 5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3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북한산 둘레길

◦2010년 북한산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북한산국립공원 계획 변경(19㎞-서울시 18㎞, 경기도1㎞), 서울시 구간 개통(31㎞), 북한산 둘레길 개통구간에 대한 안내체계 구축

◦2011년 북한산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북한산국립공원 계획 변경(경기도 13㎞)

◦북한산 둘레길의 경기도 구간(32㎞) 개통 및 안내 체계 구축

◦북한산 둘레길의 서울시 구간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2012년 경기도 구간 둘레길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및 북한산 둘레길 모니터링 실시

○계룡산·치악산둘레길

◦2011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둘레길 조성 현장 및 타당성 용역 실시하고 계룡산·치악산 둘레길 조성을 위한 계룡산국립공원 내 구간 공원계획 변경

○ 2011년~2014년 계룡산 국립공원 둘레길 중 23㎞, 치악산 둘레길의 35㎞ 조성(1단계)

○ 2015년~2019년 계룡산 국립공원 둘레길 중 30㎞, 치악산 둘레길의 33㎞ 조성(2단계)

□ 사업 추진 방법

○ 선정기준 : 지역주민의 탐방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인접해 있으며, 자연 및 문화 자원이 풍부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선정

○ 예산은 총 800억원으로 북한산 둘레길 290억원(2010~2012년), 계룡산 둘레길 220억원(2011~2019년), 치악산 둘레길 290억원(2011~2019년)

(3) 특징

○ 국립공원 및 주변지역 거주민의 경제활동 기회증가 효과

○ 마을 특산물 판매

○ 숙박 및 음식점 이용객 증가

○ 노선이 국립공원 내·외길로 구성되어 있어 둘레길을 걸음과 동시에 국립공원을 함께 체험 할 수 있음

(표5) 각 정부 부처별 도보여행길 조성정책 비교 (단위:억원)

구 분		문화생태탐방로	생태탐방로	국립공원둘레길	숲길	녹색길
사업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행정안전부
사업 목적		스토리가 있는 탐방로 조성	테마형 생태탐방로 조성	국립공원 주변 둘레길 조성	수평적 도보숲길조성	마을주변 도보길 조성
사업 기간		2009~2017	2008~2017	2010~2019	2012~2021	2011~
예산	액수	1,000	1,626	800	13,000	800
	집행방법	기금 국비 지방비	국비 760 지방비 866	국비 800	국비 지방비 기타	국비 200 지방비 200
조성현황		37개 노선 (1,324㎞)	–	21개 노선 (72㎞)	–	97개 노선 (1,051㎞)

자료)각 부처별 도보자료 및 사업시행계획에서 재정리.

Ⅲ.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정책 진단 및 사례연구

1. 국토해양부 해안누리길 선정 현황

1) 해안누리길 선정의 배경 및 목적

○ 해안누리길 선정 배경

◦ 건강에 대한 욕구와 웰빙 열풍으로 인한 걷기에 대한 관심증대

◦ 기존의 해수욕장, 해양 레저, 섬 관광 등의 형태에서 바다와 도보 여행을 접목시킨 해안도보여행길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 창출

○ 해안누리길 선정의 목적

◦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해안도보여행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주변경관이 우수하며 해양문화·역사를 체험 할 수 있는 해안도보여행길 홍보

◦ 해안누리길을 통해 어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어촌 경제 활성화 기여

2) 추진 경과

○ 해안누리길은 2010년 3월 해안순례길이란 가칭 하에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국토해양부의 공모를 통해 해안도보여행길이 이름으로서 '해안'과 '마음껏 맛보다, 즐기다'라는 의미의 순우리말 '누리'를 합쳐 '아름다운 해안을 다 누리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란 뜻의 '해안누리길'로 결정됨

◦ 해안누리길 조성 대상 : 동·서·남해안 78개 시·군·구 해안선

◦ 해안누리길 선정 방법 : 국토해양부와 해양문화재단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책길, 마을길과 같은 '옛 길'을 각 시·도의 추천을 통해 발굴하고, 각 지자체가 추천한 노선을 걷기여행전문가, 여행작가 등으로 구성된 답사단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토해양부가 노선을 선정

□ 해안누리길 선정

○2010년 3월 11개 시·도 36개 시·군·구에서 추천한 168개 노선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와 해양문화재단이 보도성·안전성·접근성·경관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 후 여행작가, 여행전문기자 등으로 구성된 답사단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으로 52개 노선을 선정

○동·서·남해안의 52개 노선(총 505㎞) 선정 : 경남5개(34.3㎞), 경북4개(40.6㎞), 부산4개(33.6㎞), 경기3개(21.9㎞), 인천2개(18.4㎞), 울산2개(7.6㎞), 충남1개(19.6㎞), 전남12개(128.6㎞), 전북1개(18㎞), 제주9개(90.9㎞)

○제주도는 올레길 코스 포함 21개 노선 추천하여 9개 노선이 선정되었고 강원도는 관동별곡 800리길 전 구간 추천하여 9개 노선이 선정됨

□ 해안누리길 홍보

○홍보책자 발간 : 여행전문기자, 한국여행작가협회 소속 여행작가, 시인 등 7명의 여행 전문가가 동·서·남해안을 직접 답사하여 쓴 노선별 상세정보

○코스의 구간별 거리 및 소요시간, 주변 관광지, 맛집과 숙박시설 등 도보여행에 필요한 정보 수록

○인터넷 상에 e-book으로 제공[1)]

(표5) 해안누리길 선정 세부현황

연번	지역	관리청	위치	시군 사용명칭	총연장(㎞)	소요시간(분)
계	□ 11개 시·도, 36개 시군구 52개 노선				505.1	
1	인천(2)	옹진군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오군포)	오군포·장촌해안길	3.0	90
2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 길상면 초지리	호국돈대길	15.4	330
3	경기(3)	안산시	안산시 대부북동 방아머리 입구	구봉해솔길	10.5	210
4		화성시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 백미리	황금해안길	5.0	100
5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매바위)	제부모세 3색체험 해안길	6.4	130
6	충남(1)	서산시	서산시 부석면 사기리 ~ 간월도리	아라메길	19.6	390
7	전북(1)	부안군	부안군 변산 대항리 새만금전시관	변산 마실길 1구간	18	480

자료)국토해양부.

1)http://cyber.mltm.go.kr/upload/ebook/bund_ebook//EBook.htm

연번	지역	관리청	위치	시군 사용명칭	총연장(㎞)	소요시간(분)
8		영광군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 홍곡리	백수해안 해당화길	16.8	300
9		함평군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돌머리해변)	돌머리 해안길	7.6	120
10		무안군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생태갯벌센타)	유월갯벌해안길	13.3	480
11		신안군	신안군 흑산면 예리	흑산도예리해안길	3.9	80
12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 송산리	해넘이길	12.0	180
13	전남(12)	진도군	진도군 의신면 접도	웰빙등산로	14.0	480
14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 의신면 모도리	신비의 바닷길	2.7	120
15		해남군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 ~ 매월리	수류미등대길	11.2	220
16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 통호리	땅끝해안도로	8.0	150
17		완도군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 동촌리	슬로우시티 체험길	19.4	360
18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 대곡리	신지 명사길	16.1	360
19		보성군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 동율리	해수욕장길	3.6	90
20		남해군	남해군 남면 홍현리 일원	다랭이길	4.0	60
21			남해군 미조면 항도마을 ~ 물건리	물미해안도로	16.5	300
22	경남(5)	사천시	사천시 송포동 ~ 대방동(대방진굴항)	실안노을길	6.0	90
23		고성군	고성군 하이면 덕영리 일원	공룡화석지 해변길	3.5	60
24		통영시	통영시 도남동 ~ 산양읍 영운리	수륙해안산책로	4.3	80
25		사하구	사하구 몰운대 ~ 다대포해수욕장	갈맷길(몰운대길)	4.0	120
26	부산(4)	영도구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남항대교)	갈맷길(절영해안로)	10.6	240
27		해운대구	해운대구 우동 ~ 송정동(동백섬~송정)	갈맷길(해운대삼포길)	7.0	180
28		기장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일원	갈맷길(해안산책길)	12.0	240
29	울산(2)	울주군	온산읍 강양면 ~ 서생면 대송리	새천년로	3.6	80
30		동구	동구 일산동 산 905 ~ 슬도 소공원	대왕암길	4.0	80
31		포항시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호미곶 새천년길	5.0	80
32	경북(4)	영덕군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 영해면 대진리	고래불 명사이십리	8.0	120
33		울진군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 평해면 월송리	관동팔경길	25.0	420
34		울릉군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 저동	행남 해안산책로	2.6	60
35		삼척시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 덕산항	맹방 해변길	6.2	90
36		동해시	동해시 망상동 ~ 천곡동 일원	망상해변길	10.5	150
37		강릉시	강릉시 경포동 경포대 ~ 남항진동	관동별곡 800리길	15.0	240
38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 사근진리	아들바위가는길	16.2	240
39	강원(9)	양양군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 ~ 현북면 하조대	양양해변 탐방길	5.5	90
40		속초시	속초시 장사동 장사항 ~ 동명동	영금정길	9.4	120
41		고성군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 토성면 교암리	관동별곡 8백리길(8구간)	7.7	120
42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 초도리 화진포	관동별곡 8백리길(1구간)	14.8	240
43			고성군 현내면 화진포 ~ 거진읍 거진리	관동별곡 8백리길(2구간)	6.3	90
44		제주시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추자도 해안일주길	15.0	420
45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 고내리	엄장 해암길	4.8	90
46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 신도1리	노을 해안로	10.6	240
47		서귀포시	서귀포시 대천동 ~ 예래동	제주올레 8코스	16.3	290
48	제주(9)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환해 장성로	10.3	240
49						
		제주시				

2. 경남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1) 경남 시·군의 해안누리길 조성 및 운영 현황

(1) 다랭이길

○장소 : 경남 남해군 홍현리 일대

○코스 : 총연장 4㎞(다랭이마을입구 - 가천대 - 가천상회 -암수바위 - 몽돌해안 - 홍현리 보건소), 1시간 코스

○도보길 조성 내용

◦가천마을로 진입하는 남쪽 입구에는 몽돌해안 생태체험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시설

◦다랭이논 언덕에서 해안으로 내려가는 295미터의 산책로가 비교적 잘 가꾸어져 있음

◦다랭이마을내 영화촬영지(맨발의 기봉이) 안내판 설치

○현장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

◦다랭이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많으나 해안누리길로 선정된 코스를 따라 도보여행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대부분의 방문객은 마을 뒤편에서 금산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이용해 금산등반을 하거나 다랭이마을만 구경하고 타 여행지로 이동함

◦코스가 짧아 걷기를 목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우며 코스의 대부분이 매우 가파른 구간이라 느림의 미학, 걷는 즐거움을 즐기는 도보여행자의 선호를 만족하지 못함

◦이정표는 설치되어 있으나 도보여행길 코스를 나타내는 지도는 없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은 매우 불편하며 방문객 수에 비해 주차장의 수용능력이 부족함

(2) 물미해안도로

○장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미조면

○코스 : 항도마을 ~ 물건리(미조면 항도마을 - 가인포마을 - 노구마을 - 은점마을 - 물건리 방조어부림)에 이르는 16.5㎞ 구간, 소요시간 5시간

○도보길 조성 내용

◦없음(동 구간은 해안도로 구간으로 걷는 길 조성이 불가능해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섬 일주 순환 도보여행길인 남해바래길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현장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

◦대중교통 접근 어려움

◦도보길 조성되지 않음. 2차선 국도(3번국도) 구간으로 도로변이 협소하고 인도와 찻길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걷기에 위험하며 매우 가파른 경사길이 굽어 있어 도보여행에 적합하지 않음

◦길 중간 중간에 경치가 좋은 곳이 있어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로 적합하나 도보여행을 위한 길로는 적당하지 않음

◦현장 답사 중 이정표 또는 구간 안내지도를 발견하지 못함

(그림2) 경남 해안누리길 노선 현황도

(3) 실안노을길

○장소 : 경남 사천시 송포동

○코스 : 모충공원 ~ 대방동(모충공원 - 삼천포 마리나 - 영복마을입구 - 선창마을입구 - 실안교 - 삼천포대교공원 - 대방진 군영 숲 - 대방진굴항)에 이르는 총길이 6㎞, 소요시간 1시간 30분 코스

○도보길 조성 내용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이순신 바닷길 제4구간(모충공원에서 삼천포대교 공원을 거쳐 늑도 유적지까지 약8km)의 일부로 이정표와 안내지도가 곳곳에 잘 설치되어 있음

◦일부 구간은 자동차도로변 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저전거길처럼 우레탄바닥 시설을 해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 도모

◦전국 9대 일몰 선정(실안 일몰),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 100선 대상 선정(실안노을길) 등 주요 감상포인트 안내

○현장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

◦대부분의 구간이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도보여행자는 보행의 피로를 덜 느끼게 하고 무릎 관절의 충격을 완화하는 흙바닥길을 선호함

◦전 구간이 평지를 걷도록 되어 있어 매우 단조로운 느낌을 주며, 길 주변에 건물이나 가로수가 없어 한여름의 태양광선이나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 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화장실 및 음료수와 간단한 간식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무인판매시설 설치 필요

◦도보구간 중에 어항시설과 죽방렴 등 어촌지역 특유의 역사 및 생활문화자원을 접할 수 있었으나 이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4) 공룡화석지 해안길

○장소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일원

○코스 : 입암마을 입구 - 상족암해변 - 공룡화석 탐방로 - 경남청소년수련관 - 상족암 - 공룡박물관에 이르는 총거리 3.5㎞, 소요시간 1시간 코스

○도보길 조성 내용

◦전망대 1개소와 우드칩 산책로 및 해안 데크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음

◦상족암해변에서 공룡발자국 화석지까지 나무데크로 연결된 산책로는 바닷물이 차면 물에 잠기고, 바닷물이 빠지면 드러나게 되어 있음

◦입암마을에서 맥전포항에 이르는 해안데크 산책로 조성중

○현장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

◦해안누리길 선정 구간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전 구간 안내지도를 발견할 수 없었음

◦물때에 따라 산책로가 잠겼다가 드러나는 곳으로 방문객의 산책로 이탈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위험경고 표지판이 없음

◦고성은 최근 세계공룡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공룡관광지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엑스포가 열리는 당항포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어 동 구간은 방문객이 많이 찾는 장소는 아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바람과 파도에 깎인 촛대바위, 병풍바위 등 볼거리가 풍부하고 어촌마을의 풍경이 아름다우나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함

(5) 수륙해안산책로

○장소 : 경남 통영시 도남동, 산양읍 명운리 일대

○코스 : 영운리 삼거리 - 삼칭이 복바위 - 등대낚시공원 - 공설해수욕장 - 충무마리나리조트에 이르는 총거리 4.3㎞, 소요시간 1시간 20분 코스

○도보길 조성 내용

◦통영시에서 조성한 토영이야~길의 테마여행 4코스인 '삼칭이길' 구간의 일부로 안내표지와 지도가 잘 설치되어 있음

◦이 구간의 테마가 '아름다운 해변 자전거길'인 만큼 자전거도로로 조성되어 있음

◦등대낚시공원 활용 필요

○현장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

◦현재 운영중인 코스는 거리가 짧아 도보여행에 부적합. 동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전거 여행자가 대부분이며, 미륵산 등산시 등산의 시작 및 하산 코스로 활용되고 있음(등산로에 전망대가 잘 갖추어져 있음)

◦해안누리길로 선정된 곳의 코스를 알리는 안내판 없음(토영이야~길의 안내표지 및 등산로 지도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음)

2) 한려해상국립공원 바닷길 통영100리 조성계획

□ 사업목적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한려수도 통영지구에 해양탐방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의 탐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탐방객 증가 및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자연훼손을 예방하고 섬 자연생태계를 보호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 사업내용

○사업위치 : 경남 통영시 일원(6개 도서)

○사 업 량 : 42.1㎞(한산도 12㎞, 비진도 4.8㎞, 연대도 2.3㎞, 대매물도 5.2㎞, 소매물도 3.1㎞ 산양읍 14.7㎞)

○사 업 비 : 총 30억원(2012년: 5억)

(표6) 바닷길 100리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사업내용	사업비
2012년	• 각 섬별 특성을 고려한 컨텐츠개발 등 기본계획 수립 • 6개(섬) 코스개발·개통 • 탐방프로그램개발	5억
2013년	• 안전시설 보강 –위험지역정비, 안내표 추가설치 등 • 편의시설설치 –화장실, 전망대, 홍보관(1개소) • 탐방프로그램 운영	10억
2014년	• 편의시설 보강 –홍보관(3개소), 전망대, 화장실 • 6개 도서 바닷길 연결	15억

자료)한려해상국립공원.

○주요 일정

◦2012. 4. : 기본계획수립 완료

◦2012. 6. : 100리길 조성 1단계 개통

◦2013. 7. : 6개 도서 전구간 개통(도보길)

◦2014. 7. : 선박을 이용한 바닷길 연결완료

3) 경남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사업의 문제점

○도보여행자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선정

◦현재까지 경남에서 선정된 해안도보여행길은 코스의 길이가 10㎞ 이내임. 이는 도심이나 문화유적 답사를 위한 도보여행 코스로는 적당하나, 자연을 감상하는 도보여행 코스로는 길이가 짧은 편임

◦남해의 물미해안도로와 통영의 수륙해안산책로는 걷기보다는 자동차 드라이브와 자전거타기가 더 적합한 구간임. 또한 다랭이길처럼 경사가 심하거나 아스팔트 바닥이 이어진 구간은 도보여행자들이 기피하는 요소임

○가족단위 도보여행객의 어촌문화 체험 및 섬 관광 연계 등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은 많으나 이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

○도보여행 코스 전반에 걸쳐 화장실과 간이판매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일부 구간은 도보여행길 이정표 및 안내지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남해바래길과 토영이야~길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보여행길 조성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해안누리길 구간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수도 적은 편임

3. 국내외 해안도보여행 사례연구

1) 외국사례

(1) 영국

□ 영국의 도보여행길(내셔널 트레일, National Trails)

○내셔널 트레일은 잉글랜드의 Natural England와 웨일즈의 Countryside Council for Wales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자연 탐방로[2]로 총연장 거리는 약 4,000km(2,500 miles)

○1900년대 초반 자연탐방로 여행객 증가. 2차 대전 이후 전후복구사업으로 국립공원. 경관지구(Areas of Outstanding National Beauty) 등과 함께 National Trails를 조성하기 시작함

○1965년 Pennine Way가 처음 완성되었음. 이후 1968년 10월 2일 국가야생탐방로체계법(National Trail System Act)이 제정된 후 14개 루트가 추가되어 현재까지 England와 Wales에 15개 루트의 도보여행길이 조성됨

○2005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매년 1,200만명의 방문객이 내셔널 트레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스코틀랜드에서는 England와 Wales의 National Trails와 비슷한 개념의 Long Distance Route를 운영하고 있음

○영국 내셔널 트레일의 특징적 요소

◦걷기뿐만 아니라 자전거타기와 승마를 할 수 있는 구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국가가 지정하는 도보여행길은 내셔널 트레일 하나로 통일되어 있음

◦자연경관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유적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을 코스에 포함하고 있음

(표7) 15개 내셔널 트레일 세부 내용

	위치	길이	특징(유명한 곳)
Cleveland Way	요크셔 북부	177km	로빈후드 만
Glydwr's Way	웨일즈 중부	217km	
Costwold Way	잉글랜드 남서부	163km	중세 마을, 야생화
Hadrian's Sall	잉글랜드 북부~캉브리아 지방	135km	로마시대 성곽
North Down's Way	잉글랜드 남동부	246km	찰스다윈 윈스턴 처칠 제인 오스틴, 찰스 디킨스 등 역사속 인물의 유적지
Offa's Dyke Path	잉글랜드-웨일즈 경계	285km	중세시대 마을, 건물
Peddars Way North Norfolk Coast Path	잉글랜드 동부	150km	해안선 갯벌
Pembrokeshine Coast Path	웨일즈 남서부	299km	해변, 해안절벽, 해안풍경
Pennine Brideway	잉글랜드 북부	209km	산업혁명시대 도시 풍경
Pennine Way	잉글랜드 북단 (스코틀랜드 접경)	429km	Middeton의 경치
The Ridge Way	잉글랜드 중부	139km	중세 성곽
South Downs Way	잉글랜드 남부	160km	석회암해변
South West Coast Path	잉글랜드 남서부	1,014km	해안선
Thames Path	잉글랜드 남중부	294km	강가 산책로
Yorkshine	요크셔 북동부	127km	역사 유적
총연장			

자료)내셔널트레일 홈페이지.

□ 해안선 도보여행길 조성사례(펨브로크셔 해안선길)

①펨브로크셔 해안선길 개요

○펨브로크셔 해안선길은 1970년에 지정된 웨일즈의 첫 번째 내셔널 트레일임. 75%는 보호구역내에 있으며 85%는 펨브로크셔 해안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음

○해안의 경관과 야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과 생활 및 문화의 흔적을 통과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어업과 농업의 현장이며, 마을들은 바다로 연결되어 있음

○2011년 온라인 관광회사인 칩플라이트가 작성한 세계 톱 10 도보여행지의 3위에 선정됨

(표8) 2011년 세계 톱 10 도보여행지

순위	명칭	국가(장소)
1	애팔래치아 트레일	미국 메인주
2	Camino Frances – St. Jean Pied de Port,	프랑스 – 스페인
3	펨브로크셔 해안길	영국 웨일즈
4	킬리만자로	탄자니아
5	지온(Zion) 오솔길	미국 유타주
6	통가리로 산악횡단길	뉴질랜드
7	파이네 순환길	칠레(토레스 데 파이네 국립공원)
8	서부해안길	캐나다 British Columbia
9	호도협(虎跳峽, 후탸오샤, Tiger Leaping Gorge)	중국 윈난성
10	잉카길(마추픽추 가는길)	페루

주)The Top Ten list, published by online travel advisors, Cheapflights.

②펨브로크셔 해안선길의 특징적 요소 및 장점

○도보여행자 편의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

◦언덕을 올라 해안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안절벽 언덕에 전망대 설치

◦도보여행 중 무거운 짐의 이동 및 동반가족을 위한 버스서비스 운영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과 화장실, 휴식을 위한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도보여행 코스는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의 해양 유적과 유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중세시대 군사진지, 교회, 켈트족의 예배당 등이 보존되어 있고 역사속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장소를 표시하고 있음

◦바이킹의 흔적 : 바이킹에 대항해서 마을을 지켰던 영웅 전설의 장소

◦펨브로크셔 성은 헨리7세가 태어난 곳이며 청교도혁명당시 올리버 크롬웰이 왕당파에 포위공격을 펼친 곳으로 유명한 장소임

○해안도보여행길 안전지침(Coastal Path Safety Code) 작성 및 게시

◦탐방로 밖으로 벗어나지 말 것. 특히 절벽 끝 낭떠러지와 현애(懸崖, overhang)를 주의할 것

◦항상 어린이들을 감시할 것, 특히 절벽 끝 낭떠러지 근처에서

◦탐방로의 지표면은 기상에 따라 끊임없이 변함. 단단한 밑창의 신발을 신을 것

◦보온, 방수 옷을 입거나 휴대할 것

◦강풍이 불 경우 절벽근처의 산책은 매우 위험하니 주의할 것

◦해변에서의 최단거리 이용 이동은 주의할 것. 조류에 의해 고립될 수 있으며, 수영은 매우 위험함

◦절벽 근처에 앉거나 절벽을 오르지 말 것

◦애완견을 통제가능한 곳에 둘 것

◦탐방로는 걷기 전용구간임을 명심할 것. 싸이클이나 승마는 일부 허용구역에서만 즐길 수 있음

○역사문화유적 및 야외활동 연계 프로그램 운영

◦튜더 머천트 하우스, 매노르비어 성 (Manorbier Castle), 성 고반 예배당 (St. Govan's Chapel), 앵글마을의 요새타워, 펨브로크 성 (Pembroke Castle), 성 데이비드 주교 성 (St. Davids Biships Palace), 성 데이비드 성당 등 역사적 건물

○ 텐비박물관, 텐비미술관, 펨브로크 박물관, 밀포드 해븐 박물관 등 전시관람시설

○ 밀포트 해븐 마리나, 야생동물 방문객 센터, Solva 마을 전통공예품 상점 과 갤러리 등 볼거리

○ 스코머섬 자연보호지역 보트여행 및 성 저스티니안스 (St. Justinians) 까지의 보트여행 : 해변에서 보이는 작은 섬까지 보트를 운행함. 이 섬에 입도해 펨브로크셔 전체 해안선을 감상할 수 있음

(2) 호주 로트니스트 섬 보호구역 도보여행 활용사례

○ 로트니스트섬은 연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입도하는 호주 서부에 위치한 관광으로 유명한 섬임

○ 섬 전체가 보호구역임(RIMP[3])

○ RIMP 지정의 목적

○ 해안사구(coastal dune)에 인간 영향 최소화 및 침식지역 복원

○ 방문객 수 증가 및 방문객 활동 기회 부여

○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해양 및 해안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하며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

○ 섬의 위험요소로부터 방문객(관광객)보호, 방문객(관광객)에게 색다른 체험의 기회 부여

○ 지역 주민에게 고용과 상업 기회 창출

○ 호주 로트니스트섬 해안도보여행 사업은 이 섬의 환경적 · 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 환경적, 문화적 자원을 보호 · 보존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 유적을 연결하는 도보여행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결과를 얻음

3)Rottnest Island Management Plan(2009~2014)

(표9) Rottnest 섬 도보여행길 관광상품 활용 내용

항목	세부내용
① 섬 전체 가이드 투어	숙박 패키지로 구성됨.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식사, bush tucker[4], 로컬 와인(전통주)
② 야간 도보 여행	야행성 동물 탐섬, 전설·설화 듣기(전설·설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밤에 가보는 이색 체험)
③ 캠프 파이어	
④ 어업 관광	(전통 어구를 이용한 고기잡이 체험)
⑤ 요리 관광	해산물을 재료로 한 요리 실습 체험
⑥ 동식물 관찰 체험	자연 학습

2) 국내사례

(1) 해안누리길 운영 모범사례 : 변산마실길

□ 변산마실길 조성

○변산마실길은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해안누리길 제7코스임. 해안누리길 선정 이전인 2009년 전라북도의「마실길 조성사업」대상지로 지정되어 노선정비, 편의시설 설치, 길 지도 작성 등 도보여행길 조성을 진행하고 있음

○전라북도는 2013년까지 총연장 1,100km의 마실길을 조성하고 코스구간내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임(임승현, 2010)

□ 변산마실길 성공요인

○최근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더불어 변산마실길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보여행장소로 부상함. 변산마실길의 성공 요인을 인터넷 블로그와 소셜 네트웨크서비스 게시글을 통해 분석, 방문자들의 긍정적 평가요소를 요약함

- ○전 구간 비포장 흙길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보여행자들의 선호에 부합
- ○적벽강, 채석강 등 지역의 훌륭한 자연경관을 잘 활용한 코스 선정
- ○어촌지역 생활과 민속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볼거리 제공 : 수성당은 칠산바다(서해바다)를 관장하는 계양할미를 모시는 오래된 당집으로 선사시대부터 제사를 지낸 역사적 유적이 발견된 곳으로 유명함

4)bush tucker : 약초, 과일, 씨앗, 고기 등을 재료로 하는 오스트리아 원주민 전통음식

○ 격포의 후박나무 숲. 이는 바다 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된 방풍림. 후박나무의 북방한계지에 조성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됨

○ 곰소어시장 : 인근 곰소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재료로 한 곰소젓갈이 지방 특산물로 판매되고 있음

○ 내소사 : 임진왜란 이후 재건한 고찰로 대웅전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전통건축물. 특히 내소사 꽃살문은 못질 없이 장인의 솜씨로 완성된 문으로 그 정교함과 섬세함을 높은 평가해 관광객의 관람이 이어짐

○ 해안가 바다생물 관찰 기회 : 마실길은 마을에서 바다로 연결되어 있거나 갯벌어장 옆으로 나 있어 바다생물들을 관찰하는 자연생태학습이 가능함

(2) 부산 갈맷길

○ 부산광역시는 1999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시내 곳곳에 산책로를 조성하기 시작했음. 이후 전국적으로 도보여행길 조성이 확산되면서 이들 개별 산책로를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

○ 지형이 가파르고 험난해 접근이 어려운 곳은 계단을 만들어 해안선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

○ 광역단체 주도의 체계적 사업 추진

○ 부산을 상징하는 갈맷길 브랜드명칭 채택

○ 2010년 갈맷길 21개 코스를 발표했으나 단절구간으로 인한 코스별 연계성이 부족하고 코스의 명칭도 통일되지 않은 것 등 문제점으로 지적됨

○ 2012년 4월 부산발전연구원은「갈맷길 700리 조성과 관리운영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9개코스(총연장 263㎞)의 순환코스 확정

○ 2012년 4월 갈맷길 700리 위성안내도 제작·배포 : 관광안내소, 시내 주요 호텔, 시구군 민원안내데스크, 서울역, 김포공항, 인천공항, 서울소재버스터미널, 한국진흥재단 지역홍보관, 고속도로휴게소, 시티투어버스 등에 비치

○ 이정표와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책로 입구에 무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이용자 편의제고

(그림3) 갈맷길 9코스

Ⅳ. 경남의 해안도보여행길 적용방안

1. 경남의 해안도보여행길 관광상품화를 위한 전략

1) 경상남도의 역할

(1) 해안도보여행길 브랜드 명칭 개발

○제주올레길, 지리산둘레길, 부산갈맷길, 전북마실길 등 최근 성공하는 도보여행장소는 지역마다 고유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도보여행길 브랜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며 방문자의 기억에 오래 남고 지역주민에게는 자기 지역의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 효과가 있음

○경남 해안을 연결하는 도보여행길에 공동의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시군이 개발한 도보여행길 브랜드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는 브랜드 파워 형성이 가능하며, 코스의 연속성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음

○현재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유의 명칭은 경남 해안도보여행길 제1구간 남해바래길, 제2구간 토영이야~길, 제3구간 이순신바닷길…과 같은 방법으로 유지

(2) 경상남도 주도의 체계적 사업 추진

○시·군은 예산의 부족, 보유 자원 및 컨텐츠 제한, 홍보와 마케팅 능력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해안도보여행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체계적 사업추진을 시도하기 어려움. 따라서 광역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접근 필요

○산림청 숲길조성과 부산 갈맷길 사례에서와 같이 종합적 계획수립에 의해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 차원의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경남지역 해안을 찾는 도보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이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공급

○방문목적, 1일 도보여행거리, 교통수단, 숙박형태, 불만족 사항 등 도보여행 참여관련 정보와 응답자의 직업·연령·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특징, 선호활동 및 관심분야, 도보여행을 위한 최대지불의사 및 지불능력, 동행자 정보 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설계

○이를 바탕으로 코스의 구간거리, 코스의 구성, 볼거리(문화유적·민속·경관·생물 등), 숙박연계상품, 편의시설의 투자 항목 등 선택

2) 레저스포츠 및 체험 활동 연계

○승마체험

○영국의 내셔널 트레일은 승마 구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호주·미국·뉴질랜드 등 서구권 국가에서는 승마가 가능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승마인구가 많지 않으므로 승마 구간을 정하는 것은 대중적이지 못함. 단,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말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하고 승마의 대중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해안도보여행과 승마체험을 연계하는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음

○승선 체험

○해안선을 따라 도보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떠 있는 선박에 한번쯤 타보고 싶은 욕구를 느낌. 특히, 최근에는 요트와 레저용 모터보트 등 최신 레저 선박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해안도보여행 코스에 레저용 보트 승선체험이 가능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거북선과 판옥선 등의 전통 군함이나 어촌에서 전통방식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뗏목을 체험하는 상품도 가능함

○캠핑카 숙박 체험

◦지난 10여 년간 오토캠핑이 국민적으로 인기있는 관광활동으로 성장하고 있음. 자동차가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방식의 캠핑카는 일반인이 평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캠핑형태임

◦바닷가의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숙박을 원하는 도보여행자에게 이색적인 숙박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캠핑카 숙박 체험을 적용할 수 있음

3) 도보여행객 유형에 따른 접근 전략

○경남 해안의 도보여행은 크게 육지부와 도서부로 구분할 수 있음

◦경남의 육지부 해안선은 이미 산업시설과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해안선을 연결하는 도보여행 코스를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육지부 도보여행구간은 10㎞ 미만의 비교적 짧은 코스로 구성하고 해안도시의 역사, 문화, 예술관련 관광지와 연계하는 패키지 상품화에 주력하는 것이 유효할 것임

◦반면에 도서부는 섬 전체를 순환하는 코스의 개발이 자유로우며 섬 관광의 특징은 입도 후 출도까지 일정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임. 이를 활용하기 위한 도보여행 코스 개발 필요하며, 섬지역 도보여행자의 숙박여행을 유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이 외에, 평일 도보여행자와 주말 도보여행자, 당일 도보여행자와 숙박 도보여행자, 단체도보여행자와 가족단위 도보여행자 등 방문객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4) 도보여행 정보제공

○경남지역 해안도보여행 코스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해 전국 각지의 여행객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

○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보여행 정보 제공 및 관리

○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해 스마트폰에서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GPS 탐색 및 추적 기능을 활용한 도보여행 장소 확인 서비스

○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도보여행코스의 정보 및 방문객간 정보공유 유도(도보여행기 공유 및 SNS 지원)

(표12) 도보여행길의 구성요소와 고려사항

분류	세부구성요소	고려사항
도보코스	구간 거리	• 1일 도보여행 거리는 주요 방문자의 방문목적/관심활동/체력조건 등에 따라 결정 • 전 구간의 총거리는 도보여행수요/투자예산 등
	코스 구성	• 순환코스(원점회귀형) 또는 편도여행코스 • 전 구간 도보가능코스 또는 일부구간 교통수단 이용 • 도보길 경사도 및 굴절정도 • 자전거/승마 등 레저 전용구간
하드웨어	도보길 조건	• 비포장(흙바닥길) 또는 포장길 • 계단 및 데크 • 햇볕의 노출 정도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안전시설	• 울타리 • 안전수칙 및 경고 표지판 • 응급 구호 및 대피시설
	편의시설	• 화장실 • 이정표/코스안내도 • 식수공급/휴식공간/취사장/야영장 • 자동판매기/간이음식점/식당/숙박시설
소프트웨어	대중교통 연결	• 도보여행 출발 및 도착지점 대중교통 연결
	연계 관광 및 활동	• 낚시/어업/어촌민속체험활동 • 해양생물 관찰체험 • 역사/문화유적관광 • 자연경관 감상 및 그림그리기/사진촬영 • 해산물요리 체험 • 승마체험 • 산악자전거/모터바이크/산악용4륜오토바이(ATV)/수륙양용차량 등 레저스포츠 체험
	패키지 상품	• 섬 일주 도보여행의 패키지화 –식사/숙박/체험활동/도보여행으로 구성 –1일 입도객 수 통제
	정보화	•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제공 • 도보길 앱 제공 및 SNS 연동으로 사용자 참여 유도

2.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을 통한 어촌활성화 방안

1) 지역 일자리 창출

○ 해안도보여행길은 비포장의 환경친화적 코스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여행객 안전을 위한 난간 및 접근애로지역 통과를 위한 데크 등 일부구간만 인공적인 길 조성

○ 이때 비포장길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공공근로사업 등의 형태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해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어촌주민을 해안도보여행 가이드, 안전관리요원 및 어촌문화해설사로 선발, 일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한 후 이들의 활동을 보장

○ 해안도보여행길 구간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 수익시설은 어촌공동체인 어촌계가 마을공동사업으로 운영하도록 제도화

2) 여행객 참여기회 확대로 재방문율 제고

○ 마을 고유의 어촌민속체험상품 개발을 위한 컨텐츠 발굴

  ◦ 어촌은 농촌 등 타 지역에 비해 전통적인 생활풍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며 그 활동의 고유성이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음. 이를 어촌문화체험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도보여행과 연계할 수 있음

  ◦ 충남 보령군에 위치한 장고도는 '등바루놀이'라는 마을전통 축제를 재연하는 행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 축제에 직접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마을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역내 도보여행 동호회원, 여행전문가, 사진작가 등 민간인을 해안도보여행 코스 선정위원으로 위촉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코스별 담당전문가를 따로 지정해 어촌지역과의 유대관계 형성

○해안도보여행 구간별 완주자에게 경상남도 차원의 구간완주 인증을 부여하고 완주구간 및 완주회수별로 해안도보여행 등급을 적용해 여행객의 참여를 독려하고 반복적 방문을 유도

○해안도보여행객 증가가 어촌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보여행객의 현지 지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해안관광지에서의 지출은 체험활동 참여기회 제공의 댓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어촌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여성 주민이 주도하는 '현지 생산한 해산물을 재료로 한 요리체험'과 남성 주민이 주도하는 '낚시 및 기타 전통어구어업 체험'을 생각할 수 있음

[참고문헌]

박영아·현용호, 도보여행 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주도 올레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3권 제7호, pp.75-93, 2009

안은주, 행복의 올레, 평화의 올레, 치유의 올레가 보여준 결실, 제주발전포럼 제32호 (2009년 겨울), 제주발전연구원, 2009

원광희, 대청호 오백리길 조성 방안, 충북발전연구원, 2011

이성용, 걷는 길의 가치를 높인 제주올레 보전 및 관리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0

이영주, 국내외 트레일 개발사례와 시사점, 강원발전연구원, 2009

임승현, U-마실길 도움정보서비스 구축, 전북발전연구원, 2010

, 전국의 걷는 길 현황 및 홍보방안, 제주발전포럼 정책논단, 2011

정재희, 느림의 가치, 걷는 길의 확산에 따른 경남의 정책방향, 경남발전연구원 Issue Paper 2010-38호, 2010

황영우, 주제가 있는 길을 걷고 싶은 부산 길 조성, BDI 포커스, 부산발전연구원, 2011

농촌진흥청, 길에서 찾는 삶의 여유, RDA Interrobang 21호, 2011

대전발전연구원, 맨발과 황톳길의 만남-계죽산 스토리 텔링, 2011

한국관광공사, 녹색관광 마케팅 조사, 2009

Pembrokeshire Magazine, a way of life

http://www.nationaltrails.co.uk

정책포커스 2012-19

경남의 해안도보여행길 조성방안

인 쇄 | 2012년 6월 7일
발 행 | 2012년 6월 11일
발행인 | 이은진
발행처 | 경남발전연구원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우:641-728)
248 Yongji-ro, Ui-Chang-Gu, Changwon, Gyeongnam 641-728
전 화 | Tel(055)239-0190. Fax(055)266-2079
홈페이지 | www.gndi.re.kr
ISBN : 978-89-8351-359-5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